이렇게 들었다 — 계율과 수행

계는 생사바다 건너주는 뱃사공

조계종은 최근 해인사 해인율원, 송광사 송광율원, 파계사 영산율원, 봉녕사 금강율원 등 네곳을 종단의 계율전문 교육기관으로 인가했다. 교계는 이번 율원 인가를 계기를 흐트러진 승가 위계질서가 바로잡히고 수행과 포교중심의 승가상이 구현되길 기대하고 있다. 전문 율원에서의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율 연구를 통해 현시대에 맞게 적용하는 작업도 계속돼야 할 것이다. 계는 깨달음의 길로 이끌어주는 나침반이다. 율원지정을 맞아 계율과 수행의 깊은 의미를 경전의 말씀을 통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계(戒)는 온갖 선법(善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요, 온갖 선법이 생겨나는 근본이니, 땅이 온갖 수목의 생겨나는 원인인 것과 같다. 〈열반경〉

▨계는 해탈의 가르침을 바르게 따르는 근본이다. 그러므로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 계에 의지해야만 온갖 선정(禪定)과 고(苦)를 없애는 지혜가 생기는 것이니, 그러기에 비구(比丘)된 자는 마땅히 청정한 계를 지켜 깨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만약 사람이 있어 청정한 계를 지킨다면 선법을 얻으려니와, 청정한 계를 지켜가지 못한다면 온갖 좋은 공덕(功德)은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알라, 계야말로 최상의 안온(安穩)한 공덕이 깃들어 있는 곳임을! 〈유교경〉

▨계를 지키는 공덕을 수행(修行)해 성취하면, 계를 지키는 공덕 때문에 성불(成佛)하게 된다. 〈광명경〉

▨부처님께서 금강수보살(金剛手菩薩)에게 이르셨다. "무생계(無生界)는 모든 성자(聖者)를 세우는 땅이며, 온갖 선행(善行)을 생기게 하는 터니, 터(땅)를 만들지 않는다면 어찌 성스러운 선(善)이 설 수 있겠는가? 모래를 쪄서 밥을 만들려 한들 어찌 이루어질 때가 있을 것이며, 똥을 파내어 향을 만든다고 될 리가 없다. 괴로움의 바다를 건너가려면 반드시 자비의 배를 빌려야 하고, 어두운 거리를 밝히려면 모름지기 지혜의 횃불을 켜 들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온갖 중생도 이 계를 지키지 않으면서 깨달음을 이루고자 한다면, 이는 말이 안된다. 이 계는 온갖 승속(僧俗)이 누구나 수지(受持)해야 한다. 〈무생계경〉

▨보살은 정계(淨戒)의 배로 파계자(破戒者)를 건네 준다. 생사의 바다에서 벗어나 열반의 기슭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육바라밀경〉

▨보살은 청정한 계로 그 몸을 아리땁게 하고, 다시 중생으로 하여금 청정한 계를 굳게 지키도록 한다. 〈수호국계주경〉

▨계는 시원한 물과 같으니, 심광미만(深廣彌滿)해서 지계자(持戒者)의 신심(身心)의 더러움을 씻어준다. 계는 진기(珍奇)한 보배와 같으니, 착한 사람들은 이를 귀중히 앎으로써 길이 온갖 과실에서 떠난다. 계는 좋은 말과 같으니, 착한 사람들은 이를 타고 진실하게 사유(思惟)해서 즐거운 과보(果報)에 매이지 않는다. 〈제법집요경〉

▨만약 사람이 있어서 부처님의 정계(淨戒)의 향(香)을 수지(受持)한다면, 천신(天神)들이 널리 이 내음을 맡고 다 사랑과 존경을 보낼 것이다. 이같이 청정한 계를 완전히 지켜서 늘 여러 선법(善法)을 실천하는 경우, 이런 사람은 능히 세상의 구속에서 해방되어 온갖 번뇌(煩惱)로부터 떠날 수 있게 된다. 〈계향경〉

▨계는 위대한 뱃사공이니, 능히 생사의 바다를 건네 준다. 계는 시원한 못이니, 온갖 번뇌를 씻어낸다. 계는 두려움을 없애는 술법이니, 사해(邪害)의 독을 제거한다. 계는 무상(無上)의 반려(伴侶)니, 험악한 길을 통과하게 된다. 계는 감로의 문이니, 성자들의 근거처다. 그러므로 계를 수지하여 마음에 동요가 없고, 전념해 포기하지 않으며, 바른 계상(戒相)을 헐뜯지 않고, 또 사명(邪命)의 마음이 없고 보면, 이를 일러 청정한 계라고 하는 것이다. 〈승기율〉

▨"내가 모든 중생을 관찰하니, 계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탓으로 악취(惡趣)에 도로 떨어져 윤회(輪廻)를 받고 있다. 이와는 달리, 이 도리를 잘 알아서 길이 계를 마음에 새겨 잊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는 기필코 불환과(不還果)를 얻어서,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본사경〉

목탁소리

천 미 희 〈부산주재기자〉

장삿속 법회 '조심'

남편의 건강, 자식의 직장, 가정 문제 등을 해결하길 원하는 불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법회 안내장이 부산 전역에 뿌려졌다. 유명 일간지에 광고까지 났다. '○○스님초청 소원성취법회'. 소원성취라는 만병통치약을 팔 때 풍기는 야릇한 냄새는 장학회 기금이나 교도소 교화기금 등 그럴듯한 불사 명칭으로 보기 좋게 포장되어 있었다.

소원이나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어려운 세상 속에서 뜻대로 풀리지 않는 자신의 문제를 안고 소원을 이루려는 많은 이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무언가에 매달리듯 모여든 이들에게 축원을 해준다며 주소와 이름 등의 신상을 기록하게 하는 것으로 법회가 시작된다. 정해진 수순이 끝나자 법상에 선 법사가 외친다. "복을 받고 싶은가? 그렇다면 하루에 천원씩 복전을 모아 지로로 일곱달 동안 입금하는 정성을 모아야 한다" 이쯤 되면 보기 좋게 포장한 상술을 눈치 챌 법도 한데 '현대판 면죄부'를 파는 일이 진행되는 동안 자리를 뜬 불자는 열 명 남짓. 마지막으로 법회참석 기념으로 염주가 축원카드와 교환되었다. 참석한 이들은 하루에 천원이라는 말에 큰돈이 아니라고 생각했겠지만 한 달에 3만원, 7개월에 21만원이라는 생각은 해볼 틈도 없이 염주를 받아들고 귀가했다. 들리는 말로는 이렇게 염주를 팔기위해 대량으로 만드는 공장까지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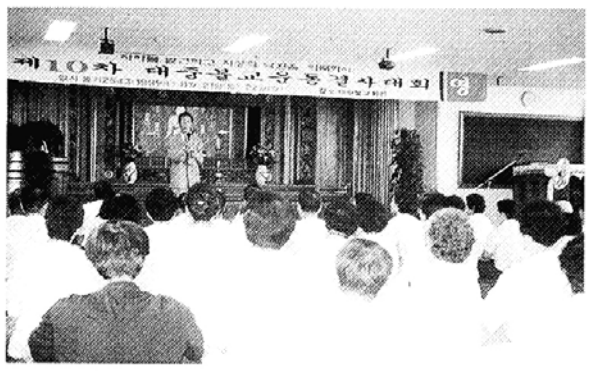
염주판매라는 '장사성' 법회가 부산에서 이미 10여차례 열렸고 인천과 서울에서도 개최돼 피해를 당한 불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법회를 주관한 단체는 유령단체이거나 행사를 위해 급조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수익금이 어떠한 명분으로 쓰이는지 그 내역이 투명하게 밝혀지고 있지 않다.

최근 조계종 호법부는 이같은 법회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자 법회를 빙자한 물품강매행위에 대한 공고를 내고 불자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피해를 당하지 말 것을 당부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종단차원의 조치에 앞서 불자 개개인이 올곧은 정진과 수행으로 혜안을 가져야 할 것이다. 불심을 사고 파는 상술에 현혹되지 않는 참다운 불심을 키워내는 것이야말로 이러한 사기성상술이 아예 발을 못 붙이게 할 테니까 말이다.

열린마당

제10차 대중불교 결사대회
21세기 대중불교운동

대원회 제10차 대중불교 결사대회가 8월21~22일 서울 대원불교회관에서 열렸다. '21세기 문화의 대중불교운동 방향모색'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중결사대회에서는 새로운 세기를 이끌어 갈 문명적 대안으로서의 불교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펼쳐졌다. 이날 대중불교 결사대회에서 발표된 발제문을 정리요약한다. 〈편집자 주〉



◇10번째 맞은 대중불교 결사대회에서는 21세기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문명적 대안으로서의 불교 역할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소승적 수행 벗어나야"

권탄준〈대원불교대 학장〉

한국불교는 대승불교이지만 그 전반적인 수행의 성격은 소승불교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리와 수행이 괴리되어 겉돌고 있는데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대승불교 본연의 수행법의 의의와 가치를 재조명하여 현실사회속에서 정법을 구현하고,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살행이야말로 개인주의에 물들어 맹목적으로 탐욕을 부리고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현대인들로 하여금 진정한 자아를 확립하여 자기자신을 참되게 지키고 실현해 나아갈 길을 열어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보살행은 또한 현재의 불교수행에서 구복신앙 차원, 신비체험 차원, 개인혼자만을 구원하고자 하는 소승적 차원 등의 성격을 탈피하여 현실세계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부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수행법이라 할 수 있다.

이와같은 수행법은 고학력시대에 각종 사회교육과 다양한 정보매체를 통해 수준높은 지식을 갖춘 합리적인 현대인에게 종교를 초월하여 공감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조직정비 적극적 실천"

강건기〈전북불교대 학장〉

대중불교 결사운동은 지난 89년 불교의 대중화 생활화 현대화 이념을 바탕으로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으로 돌아가 민족과 사회를 바르게 이끌기 위해 결성됐다.

그동안 대중불교결사운동은 〈대중불교〉 〈어린이 굴렁쇠〉 등의 창간을 결의해 척박한 불교포교현실에 문서포교를 통한 새 장을 열기도 했으며, 사후 각막 및 시신기증을 교계 최초로 실천해 교계 장기기증운동의 모태가 되기도 했다. 이같은 적극적인 실천행으로 생활속의 불교를 뿌리내리게 한 한국불교재가신행운동의 선두주자였다.

이제 10년을 맞은 대중불교 결사운동은 과거를 되돌아 보고, 겸허한 자세로 새로운 세기에 대비해야 한다. 먼저 대중불교 결사운동의 주체를 다시한번 확립하고, 그동안의 조직을 새롭게 정비함과 동시에 신행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천운동을 전개해 명실상부한 대중불교 결사를 일구어 내야 할 것이다. 어제의 경험을 되살려 살아있는 불교, 21세기의 희망이 되는 불교를 이끌어가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대중불교 결사운동의 몫이다.

"다양한 사회운동 전개"

박경준〈동국대 교수〉

열반이 불교의 최고선이며 궁극적 목표라 할 때, 불교에서 제시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인류문명은 '열반지향의 문명' 또는 '열반문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실로 오래전에 붓다가 제시한 참다운 문명에의 지름길을 놔두고 멀고먼 우회로를 돌아 왔는지 모른다. 이제 문명적 대위기에 직면한 인류를 위한 미래문명의 대안으로서 불교적 열반지향문명을 일구어 나가야한다. 대량생산 대량소비 및 경제생활 전반에 대한 발상의 대전환을 이루고, 오늘날 대중문화의 본질과 속성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또한 교육문제에 특히 깊은 관심을 기울여 열반문화의 방향에 대한 뒷받침을 이루어야 한다.

"불교는 우리에게 세계 전체에 걸쳐 고통을 낳고 영속화 시키는 경제구조에 도전할 수 있는 논리와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는 스웨덴 출신의 녹색운동가 노르베리 호지의 말을 희망삼아 다양한 불교사회운동을 전개하고, 불교도의 국제적 연대를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나아가 NGO 등의 단체는 물론 다른 종교와의 연대를 통해 새로운 문명 모색과 창출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독자의 소리

대행스님 독일대법회 '해탈의 가르침'에 감동

7월 31일 독일 라팅겐에서 개최된 대행스님 초청법회에 가족과 함께 참가했다. 한국어를 모르는 15세 된 딸과 독일남편도 통역이 전해주는 법문을 열심히 들었다. 근 25년이 되도록 불교를 잊고지낸 내게 이날 함께 부른 사홍서원은 어린시절을 다시 기억하게 했다. 천주교신자였지만 한국에서는 조계종립 학교에서 스님들께 불교를 배운 기억은 지금도 생각하면 참으로 다행이다. 이번 법회에서 큰스님의 오랜동안 자연을 베개삼아 이룩하신 해탈의 경험 전부가 고귀하고 아름다워 내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지난 98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나는 내 아들이 한국인들을 위해 만든 독일 한국 꽃동네후원회를 소개했었다. 카스트의 한마음선원 독일지원장이신 혜진스님이 다가오셔서 두손을 꼭 잡아주셨다. 스님은 헉헉대던 나에게 용기와 힘을 주셨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은 특히 말로만 국적과 종교를 떠난 사람을 이야기 하는게 아닌, 실천이 필요하다. 타국에서 상처받거나 또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교포들의 아픔이나 기쁨을 어루만져 주고, 또 유럽인에게 한국불교를 알게 해 준 계기가 된 대행스님 초청법회가 독일에 살고있는 한국인으로서 너무 감사하고 또 자랑스러웠다.

이경희〈독일 자브룩켄 거주 교민〉

존경받는 승가 되려면 계율실천 더욱 엄격해야

현재 한국불교는 승풍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을 하는 듯하다. 그러나 근본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신발신고 발바닥 긁는 격이 아닐까.

한마디로 승가가 타락하는 것을 막으려면 스님들이 돈과 여자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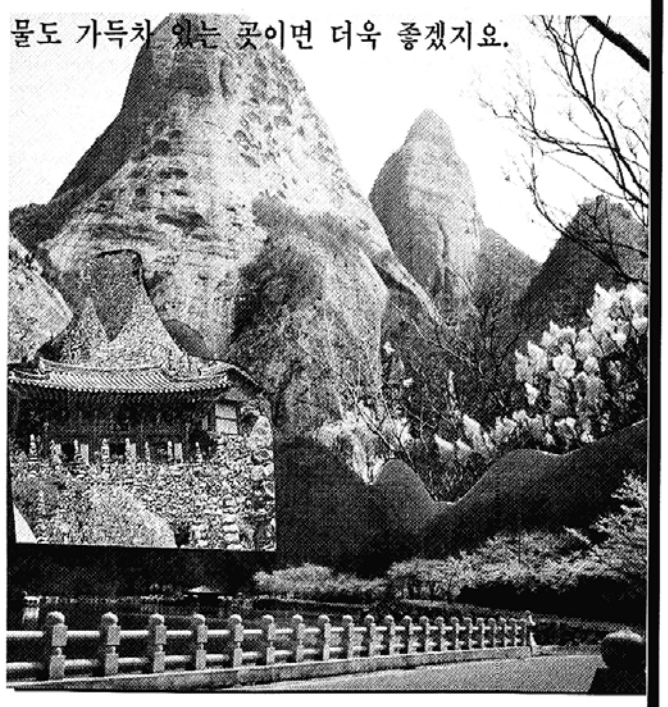
승가가 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근본 불교수행의 국가처럼 계율을 철저히 지키게 해야 한다. 포교법사 또는 소임있는 스님 외에는 보살들을 상대치 말게하고, 위의 스님들도 혼자서 또는 1:1로 만나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아울러 보시도 어느 스님 개인에게 하는 것을 신도들에게 금하는 교육을 시키고 개인적으로 보시금을 받은 스님은 곧바로 사찰재무를 담당하는 분에게 내놓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사항들은 쉽게 이행되기 어려울 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이 사항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대중참회 또는 기타의 벌칙을 분명하게 정하여, 발견될 때는 인정을 떠나 불법을 청정하게 유지시킨다는 각오아래 즉각 실천해야만 한다.

진실한 출가자와 불자라면 무엇이 수행에 방해되는지 분명하게 분별해 애당초 멀리하여야 한다. 동묵〈전북 전주시〉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기왕이면 경치도 좋고 물도 가득차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신비의 마이산탑사 —탑영제 방생—



· 관광과 방생을 한 곳에서 ·

한국의 불가사의 만불탑의 오묘한 신비,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 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진안 마이산 탑사
전화(0655)433-2900, 0303
(0655)432-0652, 0072

■약도

신개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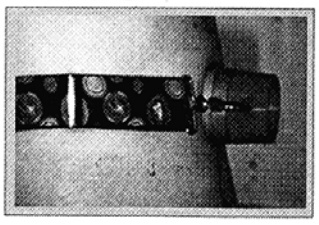
김시연스님

시·연·쑥·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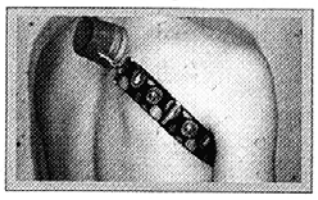
난치병에서 피부미용까지

쑥뜸의 효능은 3,000년간 인정받았습니다.
피부에 전혀 손상없이 가정에서 간단하게 뜰 수 있습니다.
한의사 대체의학 연구원이 상담해 드립니다.

▼복통치료장면



▼어깨결림 치료장면



○ 프랑스의 슈미트 의학박사는 현대 의학상 외과수술외에는 쑥뜸법으로 무슨 병이든 전부 치료할 수 있다고 격찬하였다.

○ 독일의 헤리 베르르 수미트 박사는 쑥뜸법은 동양 의학에서는 과거의 유물일지 모르나 서유럽에서는 새로운 의학이며 장래성 있는 의학이다.

○ 일본의 원지명태량 의학박사는 쑥뜸의 새로운 연구는 의학 최종목적인 치료의학과 예방의학의 양면을 동시에 해결케 해준다고 하였다.

♣몸 어느 한곳이라도 좋지 않은 분은 本社 제품 꼭한번 사용하세요.

♣「시연 쑥뜸기」는 아픈 곳이 곧 치료점입니다.

· 각종질병 쑥뜸의 효능 ·

만성피로	정력강화	고혈압
견비통	신경통	저혈압
간장병	당뇨병	요통
전립선	조루증	냉증
피부병	생리통	위장병

만병의 원인은
피가 탁하고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오는 것인데 쑥뜸을 뜨면
백혈구와 적혈구가 증가하여
피가 맑아지고 혈액순환이
잘되어 병이 치유됩니다.

■판매원 여래치신자연식품회사 ■제조원 : 도훈건강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동 1138
053-628-9145 / H.P 011-808-8880

입금계좌: 대구은행 161-07-412768-001 대구여래한방

■가격 : 200,000원(1set)
압축쑥 1개월분(50,000원), 쑥뜸기일체, 안내책자(12,000원)포함